

충북MBC 웹드라마 <인물별 대사>

① 권구근(남성,59세,도영父,공무원)

1. 이 짝은 군청에 이번에 새로 온 주무관 이.미.영 씨.
일찌감치 공원 시험에 합격한 아주 엘리트에 시골을 사랑하는 아주 보기 드문 처녀지!
(도영 향해) 그리고 이 짝은 아까 내가 말한 우리 아들내미. 전도 유망한 영농후계자.
거듭 말하지만 대대손손 충분히 먹고살 토지가 보장되어있다~이거여
2. 내가 그동안 널 생각해서 뿌린 경조사비가 얼마지 알아? 자그마치 33년이야. 공직 생활하면서 남의 집 개가 죽었대도 봉투를 디밀었어! 이제 퇴직이 널모런데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. 이게 말이 더? (때리는 시늉) 떠먹여 줘도 못하는 놈이 지랄한다! 퇴직 전까지 너 결혼 안하면 내가 그 논밭 다 떠버려서 팔아버릴겨! 아니 너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게 그, 그, 기부! 죄다 남헌티 줄거다 이거여!

② 김귀동(남성,51세, 안 풀리는 사업가)

1. (사업) 다 말아먹은 지 오래 예요. 내 인생은 왜 이래요, 구근이형?
이 김귀동이, 유복자로 태어나서 불쌍타고 울 엄니 몸이 바스라지도록 날 위해 살았는데..
정작 나는 별리는 사업마다 무너지고, 마누라도 지 나라로 가버리고, 내 이름만치 귀하게 살도 못하고 매일 이 모양 이 꼴이에요. (성애 사진 바라보며) 불구덩이서 나 구하느라 화상까지 입고 평생 웅크려 사는 엄마도 보기 싫고 지긋지긋한 이 촌구석에 돌아오면 망했다고 손가락질할까 봐...내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.

③ 이순자(여성,55세,도영뻘)

1. 아유. 가만히 좀 있어봐요. 도영이 가질 때도 효과가 있었잖아요.
(예를 차리며)진작 마을 수호신께 정성을 올렸 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.
(손이 닳도록 빌며) 우리 도영이, 색시 좀 주셔유.. 팔 다리 멀쩡허구,
얼굴은..(멈칫) 못생기지만 았으면 되유. (툭툭대는 구근 잠시 째려보다가
계속 빌며) 예예, 신령님. 이쁘고 싹싹한 며느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
해주셔유.

2. (편지-내레이션) 엄마 마음은 물어보지도 았고 지레 겁을 먹어. 겉으론
뻘뻘해도 속 여리고 자기 일에 자부심 있는 니아부지가 멋졌고, 내가
사랑하는 것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게 좋아서 나가 선택한 삶이야. 다른
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건 엄마도 스스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 할
만큼의 자부심은 있어. 이 마을 어르신들도 다 같은 마음일껄? 도영이 너도,
체리도, 주어진 각자의 삶을 남 눈치 보지 았고 직접 선택하며 살면 좋겠어.
글고, 니 아버지는 힘으로 엄마한테 한줌이여. 그건 니 아버지도 잘 았어.

④ 박복녀(여성, 64세, 유안의 할머니)

1. 이 박복녀가 똑똑히 들었다니까? 애 섰네 섰어. 가만 있어보자 입덧할
정도면.. 하이고야 암전한 고양이가 먼저 어딜 올라 간다더니이~~
도영이 고놈 남자네 남자여 깔깔깔. 도영엄니 좋겠네~ 며느리랑 손주가
한번에 굴러들어왔어~

2. 고 여우 같은 게 눈웃음 배시시 흘리면서, 그럴 줄 알았어! 순진한
도영이 꼬셔가지고!
그 집이 대대로 부농인 건 또 어떻게 알았대? 돈냄새는 귀신같이 맡았네.
어우 소름끼쳐.